최선의 돈과 최악의 돈

(롬15:22~33)

22.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5.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27.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29.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최선의 돈과 최악의 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최선의 돈, 가장 훌륭하고 좋은 그런 돈이 있고, 그 반대로 아주 안 좋고 나쁜 그런 돈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이 적게 벌리면 아주 안타까워하고 우울해하고 불행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로 살면 살수록 체험적으로 느끼면 느낄수록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돈이 진짜 돈답게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지점이, 우리에게 들어온 다음부터라는 거예

요.
우리 바깥에 있는 돈이 나한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중에 들어와 있지 않은 돈을 생각하지 말고, 그게 얼마든지 간에 지금 현재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돈이 이제부터, 내 주머니에 들어온 이후부터, 최선의 돈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돈을 벌려하지 말고, 내게 들어와 있는 돈을 최선의 돈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최악의 돈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들어와 있는 돈이 얼마든지 간에, 그것을 최선의 돈으로 만드는 것에 주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선의 돈은 무엇이고 최악의 돈은 무엇이냐!

먼저 최악의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한 번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될 때에, 그 지방의 유력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므온이 마술사에요, 마술사.
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에 가서 마술을 배워 와서 마술을 부림으로써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고 아주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빌립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전심을 다해서 그를 쫓았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훌륭한 교인 중에 한 사람인 거지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를 받고, 그 목사님의 목회 지도에 아주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마리아 지방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때, 마술사 시므온이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세례를 베풀면 사람들이 당신들이 세례를 베풀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는 일이 있게 해 주시오'하고 거래를 제안하

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줄로 생각하였느냐, 네 돈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악한 돈입니다.

자! 악한 돈이 있는데 최악의 돈이 어떤 돈이냐?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이 악한 돈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그러다 최악의 돈이 되고, 선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다가 최선의 돈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최악의 돈입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가 죽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지금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 영혼은 우리 몸과 분리될 수 있는 또 다른 속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몸과 연합돼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서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없으면 느끼지 못하는 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필요가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소원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갖고 싶은 소유의 대상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우리 수중에 들어온 돈을,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소원과 필요와 계획을 따라서 지출하게 되는 경우 악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하게 될 때 최악의 돈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십일조를 내면서, 이것은 내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서의 십일조에 관련된 축복,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그렇게 뒤집어서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을 최악의 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투자인 겁니다, 투자.
십일조를 잘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말라기서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너희가 돈이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좋고, 그렇게 필요한 돈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너희는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돈에 대해 마음을 붙이지 말고, 십일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려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먹고 살 것은 너희가 신경을 쓰지 말라는 얘기지, 십일조를 드리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넘치도록 임할 돈을 바라보면서 십일조를 내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최악의 돈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드디어 돈으로 살려고 달려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때,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은 최악의 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악한 돈이 어떤 돈입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필요를 따라서 쓰는 돈이 악한 돈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 마음대로 필요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려고 투자하는 것이 최악의 돈입니다.

그러면, 최선의 돈은 어떤 돈일까요?
최선의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내게 임하고 돈을 내가 투자해서, 그 돈 투자한 것이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먼저 임하고 그 복을 받은 상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선한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필요를 따라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육체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심과 천국이 나의 기업으로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느낌이 있게 되는 이 상태가 복이고, 현실감의 농도가 짙을수록 복이 충만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내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의 세계인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관계없이 내 마음 속에 주어진 축복이 확인이 되고, 축복에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뒤따라가는, 이미 주어져 있는 내게 주어진 축복을 뒤따라가면서 돈을 지출하게 될 때, 이게 선한 돈이고 최선의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만해 질 때, 육체로 인해서 내 마음을 채울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쉽게 한 번 얘기해 봅시다.
명품빽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들이 명품빽을 하나 딱 들면 어디를 가든 언제든 누구 앞에서든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바로 악한 돈의 지출입니다.
돈을 악하게 지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품빽이 갖고 싶던 아가씨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명품빽에 대

해 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늘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명품빽이 없어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품빽이 없어도 자신감이 생긴 마음으로 나가서 살다가, 그 마음으로부터 지출하게 될 생각이 나서 지출하게 되는 그 돈, 이게 최선의 돈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게서 지출 되는 돈이 최악의 돈이 되어버릴 때에, 그 돈과 함께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묻어 나와서 내 삶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말대로 내가 돈을 쓰면 쓸수록 내 속에 있는 추악함이 돈을 통해 묻어나옴으로써, 예를 들어 명품빽으로 내 마음이 만족해진다, 명품아파트로 만족해 질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내 마음이 만족해 질 수 있다. 이게 모두 다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마음이 기뻐지고 만족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야만 되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간음의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더러워져 갖고 삶이 내 더러움으로 가득 차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가득가득 차게 되면서, 삶의 질과 내용 자체가 망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의 돈이라는 건 뭡니까?
축복이 먼저이고 축복이 먼저인 상태에서 내 마음이 온전히 만족한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알려지면서 그 계획과 뜻을 따라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뒤따라가면서 돈이 지불 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의 열매들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는 그 통치의 실현되는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뜬금없이, 로마서를 마쳐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돈에 대한 얘기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본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대로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의 선교계획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서 '그리고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할 때 '그리로'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스페인 땅입니다, 서바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기준점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도여행을 이탈리아 서쪽에서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를 여행하면서 전도를 한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이탈리아의 서쪽으로 전도여행의 영역을 확장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건, 성경 상으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교부들의 글 속에서 잠깐씩 나오기 때문에, 서바나 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서바나에 대한 여행 계획을 갖고 있는 중에,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 얘기는 선교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점이 굉장히 눈에 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곳에서 계속 반복해서 자비량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힘주어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도움을 받으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내가 쓸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돈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만의 하나 그렇지 않겠지마는 만의 하나라도 갖게 될까봐 내가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끝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3차에 걸쳐 전도여행, 10년에 걸친 전도여행이 끝난 뒤에,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로마에는 아직 교인들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선교를 위한 후원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또 그 뒤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 얘기가, 내가 서바나로 가서 전도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너희에게 방문하고, 너희를 선교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서바나로 갈 수가 없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다.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 방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겁니까?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핍절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헌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냥 구제헌금을 갖고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할 때는 은혜요, 거저주시는 은총이요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냐 하면,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거저 받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쓰임 받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는 빚진 자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인 축복에 대해 갚음의 의미로 돈을 지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앞에서 나의 선교를 위하여 너희가 후원자가 되라는 그런 요청과,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으로 빚진 자로서, 그 갚음으로 마땅하게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돕게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부딪치는 문제, 제일 많이 부딪치는 문제, 늘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돈 문제에요.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돈을 지출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점, 돈을 지출하는 현장과 돈을 지출하는 순간에서 믿음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돈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지마는, 돈에 대한 통찰과 깨달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온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을 뒤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돈이고, 우리의 삶이 최선으로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에요.
돈을 가지고,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이 세상에 내가 느끼는 필요와 내가 느끼는 소유, 내가 느끼는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려고 하는 행동은, 돈과 함께 망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교인들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최악의 돈으로 지출하게 되면서, 교인의 삶을 더러움과 추악함과 결국 패망으로 귀결되는 삶으로 살게끔 인도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축복을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은, 그 축복의 뒤따라가는 것이고 오늘 기뻐서 연보 한다고 했어요.
기뻐서 연보를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하늘의 기쁨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된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에, 그 축복과 은혜를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뒤따라갈 때에, 내게 은혜를 끼치고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주는 매개 역할을 한 예루살렘 교회가 육체적인 의미에서, 물질적인 의미에서 가난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그 쪽으로 지출되어지는 것, 이게 선한 돈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마땅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데, 그 전달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빚으로 느끼라는 얘기에요.
이 얘기를 확대하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축복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출하지 말고, 이미 받은 축복을 뒤따라가면서 돈을 지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내 마음에 가득차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최선의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을 뒤따라가는, 이미 받은 복을 뒤따라가는, 그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연보를 많이 해야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딱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필요 없을 만큼 내 마음이 오직 하늘로부터만 만족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육체가 있음으로서 갖고 싶었던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게 없어도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복으로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서, 내 육체로 인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필요없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돈을 지출할 생각이 나게 되는 상태에서 돈을 지출하면, 하나

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 돈 지출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돈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는 하나님의 뜻이고, 돈이 많이 주어진다고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안 주어진다고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은 어쨌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것이고, 돈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돈이 적게 들어왔으면 돈이 적게 드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는 기도, 그래서 하늘이 내게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 뭐가 최악의 돈입니까?
육체가 있으므로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의 필요와 소원을 따라서 지출되게 될 때 돈은 악한 돈이 되어버리고, 육체가 있으므로 느끼는 필요를 따라서 내 마음이 흘러 나가게 돼버리면, 내 삶은 온갖 추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 버리고 맙니다.
먼저 주님의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서 육체를 통하여 갖게 되는 필요와 소원을 다 죽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마음에 죽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필요 없다 할 만큼 내 마음이 충만하게 된 상태에서, 내가 돈을 쓸 일이 생각날 때 그 생각은 전부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돈을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그리고 선교 후원금을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서, 보고 속에서, 우리는 돈이 어떻게 쓰여야 내 삶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복 받은 사람의 삶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려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돈이 최선의 돈이 되게끔 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 일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에, 내 마음이

하늘로 충만해지므로 내게서 이후로 지출되는 모든 돈들이 최선의 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